

2009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의 내재적 의미

메시지 3

주님과 함께 장막 교회 생활에서 성전 교회 생활로 전진함

성경: 겔 43:10-12, 요 14:23, 빌 3:12-14, 사 66:1-2, 57:15, 엡 2:21-22

- I.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폼에 안다’ 혹은 ‘매달리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폼에 안아 얻으시어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시어 우리가 그분을 얻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건축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안으로 건축되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인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다—합 1:1, 2:2, 4 하, 빌 3:12-14, 참조 창 41:51-52.
- II. 하나님의 백성의 일과 행동과 인격은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와 본에 따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부합되어야 한다—겔 43:10-12.
- A. 하나님의 건축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 삼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는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의해 교회 생활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전 3:9, 12, 16-17, 아 1:10-11, 엡 4:11-12, 요 14:23.
- B.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으로 충만되어 그 영에 의해 생활하고, 그 영에 의해 행동하고, 그 영에 의해 봉사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경배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봉사하고, 그 영으로 넘쳐 흘러 그 영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벧전 2:5, 엡 5:18, 갈 5:16, 25, 빌 3:3, 롬 8:4, 요 4:24, 롬 1:9, 요 7:37-38, 고후 3:6, 요 6:63, 사 66:1-2, 57:15.
- C.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친구들이 될 뿐 아니라, 그분과 가장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갖고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임받는 그분의 동반자들이 되어야 한다—요 2:17-22, 약 2:23, 출 33:11.
- III. 장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 A. 열왕기상 8 장 1 절부터 11 절은 장막이 성전과 합쳐진 것을 보여준다. 예표에서, 장막은 광야에서 움직인 이동식 전신이었던 것에 반해, 성전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완결이었다.
- B. 장막의 확대인 성전은 교회가 강화되고 안정되는 것을 상징하며, 성전 안의 기구가 새롭게 되고 확대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체험이 새롭게 되고 확대되는 것을 상징한다.
1. 성전의 치수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치수는 장막의 치수의 두 배였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 외에는 기구들과 그릇들의 크기와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왕상 6:2, 20, 대하 4:1-8, 참조 출 26:3, 16, 18, 22-24, 33.
2. 이것은 (언약궤로 상징된) 그리스도 자신은 확대될 수 없지만, 성전이나 그 기구와 그릇들로 상징된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그분의 확대된 표현에 걸맞게 크게 증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엡 3:8, 14-19, 빌 3:7-14.
- C. 장막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각 지방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예표하는 데 반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인 교회를 상징한다. 지방 교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목표인 몸의 실재로 이끌기 위한 귀한 절차이다—엡 1:22-23, 참조 계 21:10-11.

- D. 유일한 사역은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실재화된다—출 25:22, 38:21, 계 1:2, 9, 참조 엡 4:4, 요 16:13.
- E. 고린도전서 12 장에 묘사된 몸은 지방 교회가 가져야 하는 증거, 즉 몸의 증거이다. 오늘 지방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표현하는 증거이어야 한다—14-18, 21 절.
- F. 교회는 하나의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 ‘지방 교회’를 말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교회들이 소유한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다—요 17:11, 21, 23, 계 1:10-12.
- G.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이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와, 기능을 발휘하는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있는 회복이다—엡 1:17, 3:16-21, 4:1-6, 16.

**IV.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은 혼의 광야에 있는 장막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를 열망하신다. 성전 교회 생활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히 6:1 상, 수 3:14-17, 신 8:7-9, 엡 2:21-22, 골 1:12, 2:6-7.**

- A. 언약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마 1:23.
- B. 언약궤의 역사의 첫 단계에서 언약궤는 성막의 중심과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교회의 중심과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언약궤가 장막의 이상 가운데 언급된 첫 번째 항목이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의 지위를 차지하시어, 우리가 ‘그분 안으로’ 생명이 자라고 ‘그분에게서’ 생명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출 25:10, 40:21, 골 1:17 하, 18 하, 엡 4:15-16.
- C.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고 장막과 분리되어, 장막은 실재가 없는 빈 장막이 되었다—삼상 4:11-6:1.
  - 1. 타락한 이스라엘은 어리석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체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롬 2:28-29.
  - 2.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회개하고 철저한 자백을 하고 그들의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었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이나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마음이 없었던 그들은 그들이 언약궤의 움직임을 통해 과거에 승리한 것에 근거하여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의지했다.
  - 3. 언약궤를 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어가는 것이다. 언약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의 그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움직이시려 하지 않으셨다.
  - 4.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을 횡령한 것, 심지어 그들의 안전과 평안과 안식과 이익을 위해 그분을 강제로 나가게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번영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횡령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의 증거를 대체할 때 타락이 있다—왕상 8:48.
  - 5.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하시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다.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보다 언약궤 자체가 사로잡혀 갔다. ‘언약궤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게’ 되는 것은 ‘영광이

없다'를 의미하는 '이가봇'이 있는 것이다—삼상 4:21-22, 11 상, 13 상, 참조 골 1:27-29.

**V.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복사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익과 유익만을 관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켜 다윗을 얻으셨고, 다윗을 통해 그분의 성전의 건축을 위한 솔로몬을 얻으셨다—삼상 1:27-28, 2:30, 3:1-4, 9-10.**

- A.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형식적인 봉사자들을 대체하는 자원자였다—1:11, 28 상.
- B. 사무엘은 이 땅에서의 신성한 통치를 위해 왕들을 임명하고 세우기까지 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실하게 행하는 제사장이었다—2:35.
- C. 사무엘은 낡고 진부한 제사장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대치한, 제사장으로서는 그가 세운 왕들을 도와 하나님의 말을 한, 하나님이 세우신 신언자였다—3:20.
- D. 사무엘은 낡은 제사장 체계가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대치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다—7:15-17.
- E.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길에 지켜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열국의 우상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예벰에셀이신 하나님을 누려 그분의 선민에 관한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12:23-24, 7:3-14, 8:6, 15:11 하.

**VI.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의 예시이다.**

- A. 교회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용이셨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다—출 40:21.
- B. 두 번째 단계에서 교회는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잃어버리고 내적 실재가 없는 빈 그릇이 되었다—계 3:20.
- C.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회복되어 먼저는 기랴트아람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거기에서 이십 년간 머물렀고(삼상 6:2-2), 그 후에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삼하 6:10-12). 2 세기부터, 주님의 임재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 생활은 없는 많은 '오벰에돔들'이 일으켜졌다.
- D. 다윗은 언약궤를 오벰에돔의 집에서 옮겨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좋은 곳, 시온 산에 있는 자기 성에 마련해 두었던 장막으로 가져왔다(12-19 절, 대상 15:1-16:1). 이것은 개선된 상황이었지만, 언약궤는 아직 장막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합당치 못한 곳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한 다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러한 믿는이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합당치 않은 실행(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을 하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다—참조 왕상 3:3-15, 대하 1:10.
- E. 결국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언약궤는 성전 안의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해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서 사는 단체적인 생활을 지닌 성전 교회 생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왕상 8:11, 48, 엡 2:21-22.